

40

그리스도인의 고난

벧전 4~5장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 52장 (때로는 너의 앞에)

오늘 배울



1.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2. 고난과 영광의 연관성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정리해 봅시다(고후 11:24~28, 빌전 4:12~14).

2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이 있으면 적어 보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해 봅시다.

3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시 119:67, 71, 고후 4:17)?

4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의 각오를 정리해 봅시다(롬 8:18, 약 5:13, 벘전 2:19~20).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19:78

의

시 119:86

화

벧전 2:19

↑

벧전 2:20

↓

벧전 4:1

↓

벧전 4:16

↓

벧전 5:10



흔드는 바람 때문에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 부는 3월의 강한 바람은 나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매서운 겨울을 겨우 견뎌낸 나무에 쌀쌀한 바람이 마구 불어 가느다란 가지들이 요동치듯 흔들리는 것을 보면 무척 애처러워 보이지만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나무들에게 약이 된답니다. 이른 봄, 강한 바람에 나무와 가지가 많이 흔들려야만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드는 바람이 겨우내 활동 않은 나무줄기와 가지를 흔들어 깨우고, 그 운동 작용으로 뿌리부터 가지와 새싹까지 영양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가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흔드는 바람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흔드는 바람이 괴롭지만 나무는 그 바람 때문에 더 강하고 튼튼하게, 더 풍성하게,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좀 더 편하고, 금전적으로 이익이 많은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가치관과 목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5)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사는 목적이 확실해졌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 지식, 건강, 환경, 경제적인 여건, 기술적인 면, 자기 적성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단,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잠언 16:8)"라는 말씀처럼 적게 벌더라도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는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을 먼저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